

조선시대 통번역 교육 연구* **

유 정 화
(한국외대)

1. 서론

한국에서 통번역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 라고 할 수 있다. 통번역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나 사신 접대 기관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전해지나 전담 기관이 설치된 것은 고려시대 후기에 와서이다. 고려 전기만 해도 통번역 교육 및 통번역 담당기관에 대한 기록이 드물고 다양한 기술관 선발 시험 중에서도 역관 선발 기록은 없다. 그 이유는 첫째, 고려조의 과거제도가 당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어서 당제에 없는 과거를 설치할 수 없었다는 점, 둘째로는 송대의 중국어는 한문을 알고 있는 문신들에게 별도의 중국어 교육이 없어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정광 1990: 45).

* 이 연구는 2014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본 논문은 2014 한국번역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제도적인 통번역 교육은 고려 후기 1276년 통문관이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원 간섭기를 고려하면 그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¹⁾ 실제 고려사 전반에 걸쳐 전문 통번역 기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통사 혹은 설인으로 불렸던 통역사에 대한 언급은 곳곳에서 발견된다.²⁾ 고려가 국초부터 역관 양성의 필요를 느껴 이들의 교육과 사회적 대우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이미숙 2009: 205).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통번역 교육은 보다 세분화 및 전문화되었다. 고려 말 통문관에서 개명한 사역원은 이학(史學)³⁾과 역학(譯學) 모두를 함께 관장하던 기관이었다.

공양왕 원년에 십학 교수관(教授官)을 두고 다음과 같이 나누어 소속시키게 하였다. 즉 예학(禮學)은 성균관(成均館)에, 악학(樂學)은 전의시(典儀寺)에, 병학(兵學)은 군후소(軍候所)에, 율학(律學)은 전법시(典法寺)에, 자학(字學)은 전교시(典校寺)에 의학(醫學)은 전의시(典醫寺)에, 풍수 음양학(風水陰陽學)은 서운관(書雲觀)에, 이학(史學)은 사역원(司譯院)에 각각 속하게 하였다.⁴⁾

그러나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이학과 역학은 그 주관 부서가 달라진다. 조선시대 통번역 교육은 사역원에서 전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외교업무를 관장하던 승문원(1410년 설치)에서도 통번역 교육이 이루어졌다. 중국과 주고받던 외교문서는 의례 사용하던 한문과는 다른 이문(吏文)으로 작성되었다. 이문은 중국과 주고받는 외교문서 및 우리나라의 관청 공문서 등에 사용되던 독특한 한문(漢文)의 문체(文體)로 아무리 한문에 해박하다고 해도 이문을 알지 못하면 외교문서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고려에서는 공양왕 때부터 사

1) 이미숙(2009: 203-220)은 고려시대 사신접대를 맡았던 예빈성(禮賓省)을 통번역 교육 기관의 효시로 보고 이후 각문(閣門), 액정국(掖庭局), 역어도감(譯語都監)을 거쳐 통문관이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2) 『고려사』 「세가」 3에 보면 거란어 학습 목적으로 유학생을 파견한 것, 거란·여진·발해 통사에게 곡식을 하사한 내용 등에서 추정할 수 있다.

3) 중국과의 외교문서에 사용한 이문(吏文)에 대해 연구하고 이문을 사용한 외교문서 작성 및 번역을 다룬 학문.

4) 『고려사』 (전자자료), 누리미디어.

역원에 이학교관을 설치하여 이문교육에 힘써왔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승무원에서는 이학을 주로 전담하고 일반 통번역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역학은 사역원에서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의 통번역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통역 교육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사역원에는 한학, 몽고학, 여진학, 왜학으로 구성된 4학 외에도 우어청이라고 불리는 외국어 몰입교육 기관이 있었다. 오늘날 영어마을이나 일부 영어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영어몰입교육과 비교할 수 있는데 기초 수준의 회화부터 고급 수준의 회화까지 외국어로만 말을 해야 했다.

그밖에 미리 예비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시키고 과거를 통해 통번역사를 선발하는 등 교육과정이 보다 체계화되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조선시대 통번역 교육 연구는 주로 역학 및 역관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⁵⁾ 그러나 다수의 연구는 국어학과 역사학의 시각으로 진행된 것으로 통번역학 시각에 입각한 연구는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통번역학의 관점에서 승무원과 우어청을 포함한 사역원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통번역 교육기관의 입학절차, 교원, 교수법, 교재, 규율 등을 살펴보아 당시 통번역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당대 통번역 교육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조선시대 통번역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상설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통번역 교육은 고려와 비교하여 전문화 및 세분화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교육의 효율 및 질적 제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고려시대 잡학교육의 위상이 조선시대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고려는 유학 외에도 잡학이라 불렀던 기타 학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에서 유학과 기타 학문을 모두 교육하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비록 당시 국자감에서 교육했던 잡학

5) 이건형(1981), 정광(1990)의 역과(譯科), 역서(譯書), 역학교육 연구가 본 연구에 있어 큰 참고가 되었음을 밝혀둔다.

은 율학, 서학, 산학에 불과하였으나 이에 속하지 않았던 의학의 경우에도 재상급에 오르는 의관이 배출되었다(이미숙 2003: 111-113). 따라서 통번역학의 위상도 이와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고려시대 역관 우광유(于光儒)는 참직(參職)⁶⁾에 올랐으며,⁷⁾ 역관 강준재(康俊才)는 5품에 임명되었다.⁸⁾ 또한 통번역 교육생은 고위직은 아니더라도 모두 현직 관료들이었다. 고려사에 보면 통문관의 경우 입학자격은 40세 미만의 금내학관⁹⁾의 참외(參外)¹⁰⁾ 관직에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¹¹⁾

通文館忠烈王二年 始置之令禁內學官等參外年未四十者習漢語¹²⁾.

(통문관은 충렬왕 2년에 설치한 것으로, 금내학관 등 참외의 관직에 있는 자로서 나이가 40살 미만인 자들에게 한어를 배우게 하였다)

고려시대의 10학에 이어 조선 건국 초기인 태조 2년(1393)에 설치된 6학¹³⁾도 양가 자제 교육을 위해 설치된 것이었다.¹⁴⁾

設六學, 令良家子弟肄習。一兵學, 二律學, 三字學, 四譯學, 五醫學, 六算學

(육학(六學)을 설치하고 양가(良家)의 자제(子弟)들로 하여금 익히게 했으니, 1은 병학(兵學), 2는 율학(律學), 3은 자학(字學), 4는 역학(譯學), 5는 의학(醫學), 6은 산학(算學)이었다)

국가감은 후기에 들어서 여러 차례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고려 말 성균관으

6) 6품 이상의 관직.

7) 『고려사절요』 권 14 의종(毅宗) 2년 7월條.

8) 『고려사』 권 75 「志」 29 元宗 元年 4月條.

9) 금내학관은 비서성(秘書省)·사관(史館)·한림원(翰林院)·보문각(寶文閣)·어서원(御書院)·동문원(同文院)을 일컫는다.

10) 7품 이하 관직.

11) 『고려사』 제76권 「志」 제30 백관 1.

12) 밑줄은 필자가 강조한 것임(이후 밑줄도 필자가 한 것임).

13) 병학(兵學)·율학(律學)·자학(字學)·역학(譯學)·의학(醫學)·산학(算學)으로 이루어짐.

14) 『태조실록』 권제4, 12장 앞쪽, 태조 2년 10월 27일(기해).

로 명칭이 최종 변경된 이후로는 기술직을 배척하고 유학만을 교육하는 곳으로 그 성격도 변질되었다. 특히 이학과 역학이 포함된 십학¹⁵⁾을 설립하면서 유학과 기타 학문의 위상에 있어서 큰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유학을 제외한 나머지 학문이 모두 관련 정부 부서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성균관이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두 번째는 상설한바와 같이 고려시대의 이문교육과 일반 통번역 교육이 모두 사역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승문원과 사역원으로 구분되어진 조선시대의 교육이 보다 전문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 한편으로는 승문원의 경우 문관, 사역원의 경우는 중인으로 그 계층이 명확히 구분됨에 따라 통번역사의 지위를 하락시킨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중인은 신분 상승의 한계가 뚜렷한 계층이었으므로 고위층의 경우 통번역 교육에 대한 관심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역원 입학을 기피하게 되었고, 결국 사역원 교육은 기대만큼의 결과를 낳지 못했다. 아래의 기사에서도 이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세종 69권, 17년(1435 을묘 / 명 선덕(宣德) 10년) 8월 13일(임자) 2번째 기사>

사역원 제조(司譯院提調)가 아뢰기를,

“문신으로 강예관(講肄官)이 된 사람은 대개 피할 길을 피하는 사람이 많아서 고의로 업무에 근실하지 않으니, 그 게으른 사람은, 청컨대, 모두 관직을 파면시키고 그대로 학업을 익히게 하여, 그들이 마음을 고쳐 근실하고 조심함을 기다려서야 서용(敍用)하도록 할 것이며, 또 말을 통역하는 임무는 사람들이 모두 이를 천하게 여기므로, 나이 젊은 문신(文臣)들은 현관(顯官)·요직(要職)을 경력(經歷)할 수 없음을 한스럽게 여겨, 마침내 업무에 근실하지 않으니, 청컨대, 대간과 육조에서 재주를 헤아려 뽑아 서용해서, 이를 영선(榮選)으로 여기게 한다면, 저절로 흥기(興起)할 것입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15) 高麗史 卷77 志31 百官2 諸司都監各色 에 따르면 십학교수관을 설치하였다는 언급이 있는데 모두 8개 학문만 언급이 된다. 신천식(1995:361)은 조선 초(태종 6년 11월)에 설치된 10학을 근거로 누락된 2개의 분야가 譯學과 算學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조선시대 통번역 및 통번역사에 대한 위상이 하락하였다고 하나 외교 및 해외 정보 수집에 있어서 통번역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했다. 특히 사대관계에 있었던 중국과의 관계에서 통번역사들은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변란 등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상황 파악을 위해 파견되는 사람들도 다름 아닌 통번역사들이었다.¹⁶⁾

“압해관(押解官)이 들어갔으니 일로(一路)의 변란 소식을 상세히 알아올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속히 알려면 의주(義州)의 역학 훈도(譯學訓導)도 어떠한 일을 핑계대어 요동으로 들여보내라....(후략)

아래의 기사를 통해서도 조선의 왕과 고위 관리들은 통번역 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 45권, 11년(1429 기유 / 명 선덕(宣德) 4년) 9월 6일(기유) 1번째 기사>

예조 판서 신상(申尙)이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사대(事大)하는데 있어서 역학(譯學)보다 더 중한 것은 없 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역원(司譯院)의 생도(生徒)들은 다만 어훈(語訓)만 익히고 문리(文理)를 알지 못하여 중국의 사신을 접대할 때나 우리나라의 사신이 명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통역이 잘못되어 조롱과 비웃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일찍이 의관 자제(衣冠子弟)를 뽑아서 이학(史學)을 익히게 하라고 명하시어 조금 문의(文義)를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 장서서 외치며 인술하는 방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전(前) 교리(校理) 이 변(李邊)은 이미 문과(文科)에 급제하고도 오히려 이학(史學)을 즐겨하여 자기의 임무로 생각하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니 역원(譯院)의 학생들 이 모두 그의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이변을 역학(譯學)의 훈도(訓導)로 삼아서 표면에서 인술하고 선창(先唱)하여 격려(激勵)하게 해야 하 겠으나, 변(邊)이 이제 바야흐로 상중(喪中)에 있어 1년이 넘지 않았습니 다.”하였다.

좌의정 황희 · 판부사(判府事) 허조가 따라서 아뢰기를,

“변이 진실로 이학(史學)을 좋아하므로 전번에 기복(起復)하기를 계청(啓

16) 『중종실록』 99권, 37년(1542 임인 / 명 가정(嘉靖) 21년) 10월 22일(무술) 1번째 기사.

請)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소상(小祥)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역학은 실로 국가의 중대한 일이다. 변(邊)도 또한 나의 뜻을 몸 받아 부지런히 배워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니 소상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기복(起復)하게 하여 서반(西班)의 벼슬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정부의 관심은 중국어뿐만 아니라 교린관계에 있던 각국 언어들에도 있었다. 특히 여러 외국어에 대한 통번역 교육은 국가 업무에 있어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학업 이후 진로가 어두웠던 일본어, 여진어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나라가 멸망한 후 쓰임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몽고어 통번역사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세종 3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4월 16일(경인) 4번째 기사>

예조 판서 허조가 계하기를,

“몽고(蒙古) 어학이 오늘날의 급한 일은 아니나, 국가에서는 역시 폐할 수 없는 것이니, 이번의 역과(譯科)에 비록 합격되지 못한 자라도 반드시 3, 4명을 모집해서 후학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13권,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8월 8일(무술) 2번째 기사>

예조에서 계하기를,

“왜학생도(倭學生徒)들이 비록 그의 학업에는 부지런하나, 나날 직업의 길이 없어서, 모두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왜학(倭學)의 어음(語音)과 글씨 쓰는 것도 중국글과 달라서, 만일 힘써 권장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폐절될 염려가 있으니, 지금부터 그들의 잘하고 못한 것을 시험하여, 사역원(司譯院) 녹관(祿官)의 한 자리를 정하여 윤번으로 제수하게 하고, 생도로써 자격이 완성된 자는 예조에서 이조에 공문을 내어 적당한 관직에 등용하게 하소서.” 하였다.

<성종 93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6월 14일(갑진) 1번

째 기사>

좌참찬(左參贊) 허중(許琮)이 와서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의 만포(滿浦)·이산(理山)·창성(昌城) 등의 진(鎭) 외의 다른 진은 모두 여진(女眞)의 통사(通事)가 없으니, 만약 야인(野人)이 온다면 통역(通譯)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의주(義州)·위원(渭原)·벽동(碧潼)에도 만포의 예에 따라 여진 통사 한 사람을 군관(軍官)이라 일컬어 차송(差送)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통번역 교육을 중요시했던 태도는 실질적인 제도 설립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는 질정관(質正官) 제도를 들 수 있다. 질정관이란 글의 음운이나 기타 제도 등에 관한 의문점을 중국에 질문하여 알아오는 일을 맡은 임시 벼슬로 조선시대에 새롭게 신설된 관직이다. 질정관은 중국 사행에 동행하거나 조선에 파견된 사신에게 찾아가 문의하는 등 정확한 중국어 발음 연구를 위해 노력했다.

<중종 102권, 39년(1544 갑진 / 명 가정(嘉靖) 23년) 4월 2일(경오) 3번째 기사>

국가에서 매양 과거를 보인 뒤에는 문신(文臣) 중에 나이 젊은, 총명하고 민첩한 사람을 가려 승문원(承文院)에 소속시켜 한어(漢語)와 이문(吏文)을 학습(學習)시켜서 그 중에 장래가 유망한 사람은 질정관(質正官)이라 이름하여 사행(使行) 때마다 북경(北京)에 가도록 하는 것은, 곧 옛적에 김구(金丘)가 건의(建議)한 뜻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한자어 발음을 알기 위해 여러 차례 유학생을 파견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세종실록』과 『중종실록』 등에서 중국어 학습을 위해 유학생 파견을 논의한 기사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세종 61권,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윤8월 29일(기묘) 1번째 기사>

자제들을 보내어서 입학하는 일은 내가 매양 생각하니, 부모처자와 서로 이별하는 정은 진실로 참을 수 없는 일이나, 그러나 우리나라가 중국과 사귀는 데에 요긴한 것은 오로지 중국어[漢語]와 이문(吏文)에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통사가 겨우 자기의 할 말은 할 줄 알되, 중국 사람의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하여서 관계되는 것이 가볍지 아니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

다. 나는 생각하기를, 이문(吏文)은 우리나라 사람이 비록 다 알지는 못할 지라도 그래도 문자로 통할 수가 있지만, 중국에 가서는 언어로서 통화하는 일이 꼭 많은데, 중국 사람의 말하는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잘 대답할 수 있겠는가. 대체로 언어라는 것은 털끝만한 차이로 만사가 그릇될 수 있으니 진실로 염려되는 것이다. 그런데 단지 요동에 입학할 것만 청하는 것은 좀 미흡한 것 같고, 더구나 북경은 길도 꽤 가까우니 북경의 국자감(國子監)이나 혹은 요동 향학(鄉學)에 입학할 것을 주본(奏本)에다 기재하는 것이 어떠할까.

<중종 23권, 10년(1515 을해 / 명 정덕(正德) 10년) 11월 3일(을유) 3번째 기사>

“예전에는 자제(子弟)를 중국에 보내어 입학(入學)시킨 때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서적은 고음(古音)과 같지 않고 훈(訓)도 잘못되어 있으니, 이제 보내어 바른 음과 훈을 질정(質正)해 오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다만 지금 중국이 요란하니, 주청(奏請)하는 것이 괜찮은가의 여부를 대신들이 함께 모일 때에 문도록 하라.”

위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통역사들의 외국어 듣기 말하기 실력이 좋지 않아 정부에서 중국으로의 유학을 추진하였다. 위 기사에 따르면 그 이전에 중국으로의 유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학을 보내려는 시도는 중국의 거부로 실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기사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중종 23권, 10년(1515 을해 / 명 정덕(正德) 10년) 11월 14일(병신) 2번째 기사>

영의정(領議政) 유순(柳詢)이 의논드리기를…….

그러나 자제를 보내어 입학시키는 일은 전조(前朝) 이래로 오래 시행하지 않다가 세종조에서 역대의 옛 규례에 의거하여 주청한 적이 있으나 중국에서 끝내 허가하지 않았는데, 대개 외인(外人)이 경사(京師)에 오래 머물러 중국의 일을 엿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중국에 사고가 많아서 조정의 정사가 점점 어지러워져서, 국자감(國子監)에서 학생을 육양(育養)하는 일 같은 것을 흔히 소홀히 하여 예전 같지 않을 터인데, 어찌 외국인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겠습니까? 끝내 허가받지 못하리라는 것은 바로 성료(聖料)와 같습니다.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미

알았으면 그런 대로 주청해 본다는 것은 한갓 일을 많게 만들 뿐입니다.

언급한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통번역사들은 통번역 업무 외에도 외국 정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겸하였다. 이에 따라 통번역사를 통한 기밀 유출을 염려한 중국의 반대로 유학이 좌절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조선시대 통번역교육이 승문원과 사역원 등 전문기관으로 양분되고 통번역사 및 교육생이 중인 계층으로 고정되면서 통번역 교육에 대한 위상은 약화되었다. 반면 조선이 사대교린의 외교를 취하면서 대외 관계에 있어서의 통번역사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당대 정부 또한 질정관제도를 시행하거나 유학생을 중국에 파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통번역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3. 조선시대 통번역교육기관

3.1. 설치 배경

3.1.1. 승문원

전술한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통번역 교육을 담당한 곳은 크게 승문원과 사역원 두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승문원은 조선 초기 설치한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가 전신으로 이후 태종 11년(1411)에 이를 승문원으로 개칭하였다. 승문원의 주 업무는 이문으로 된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외교정책의 원칙이 사대(중국)와 교린(여진, 일본)이었던 만큼 승문원에서는 이문을 비롯하여 외국어 통번역 교육이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실록 권 47 세종 12년 경술 2월 기사를 보면 사역원에서 이문을, 승문원에서 한어를 함께 교육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정상회담 통역사로 생각할 수 있는 어전통사를 승문원 출신의 문관이 맡기도 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실례로 강홍립은 선조 30년(1597) 알성문과(謁聖文科)¹⁷⁾에 급제한 문관으로 선조 39년에 어전통사(御前通事)를 수행하였고 역관 집안 출신인 최세진(崔世珍)은

17) 조선 시대 임금이 성균관의 문묘에 참배한 뒤 보던 문과(文科).

승문원 제조(提調)¹⁸⁾를 역임하였다.

3.1.2 사역원

사역원의 설립 목적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당시 사대교린이라는 외교정책에 맞게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주변국들과의 서신교환 및 사신접대를 위한 통번역 기관이자 교육기관이다. 사역원은 고려시대 통문관을 계승한 것으로 조선시대 사역원(司譯院) 『통문관지』 서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려 충렬왕(忠烈王) 2년(1276)에 처음으로 통문관(通文館)을 설치하고 한어(漢語)를 익히게 하였는데, 공양왕(恭讓王) 3년(1391)에 고쳐서 한문도감(漢文都監)이라고 하였다. 국초에 사역원(司譯院)을 설치하여 여러 나라의 언어를 번역하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사역원에는 총 4개 언어가 설치되었는데 설치 초기에는 중국어과와 몽고어과가 있었고 태종 15년에 일본어과가 설치되고 이후 여진어과(이후 청학, 즉 만주어과로 바뀜)가 신설된다.

3.1.3 우어청

우어청은 우어별체아청(偶語別遞兒廳)의 약칭으로 사역원 소속 관청이다. 숙종 8년(1682) 재상이었던 민정중(閔鼎重)이 사역원에서 나이 젊고 재주 있는 자를 뽑아 훈장(訓長)으로부터 생도(生徒)에 이르기까지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고 외국어만 사용하도록 할 것을 건의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조선후기에 이를 수록 통역능력이 중시되면서 우어청에서 학습하는 생도 수도 증가하였는데 1697년 중국어 50, 몽고어 10, 일본어, 만주어 각 20명으로 총 100명이었던 생도 수는 18세기 말에는 중국어 70, 만주어 40, 몽고어, 일본어가 각 30명으로 총 170명에 이르렀다(정승혜 2002: 293).

18) 조선시대 잡무 및 기술계통의 관직. 조달·영선·제작·창고·접대·어학·의학·천문·지리·음악 등 당상관 이상의 관원이 없는 관아에 겸직으로 배속되어 각 관아를 통솔하던 관직이다.

〈표 1〉 조선시대 통번역 교육기관 및 교육목적

명칭	설치연도	교육내용
승문원	1410	외교문서 작성, 이문교육
사역원	1402	통번역 교육, 통번역 실무
우어청	1682	외국어 말하기 및 통역능력향상

3.2 입학절차

승문원에서는 5품 이하 관원에게 한어와 이문을 교육하였으나¹⁹⁾ 승문원은 교육기관이 아닌 예조에 속한 관청으로 승문원 관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 합격해야했다. 우어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역원 생도 중에 총명한 자를 선발하였다. 반면 사역원의 경우에는 먼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차생도(예비학생)가 되어야했다. 『통문관지』 권 2 「입속(入屬)」에 보면 사역원 입학 절차에 대한 기록이 있다.

무릇 본원(本院)에 소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도제조(都提調)에게 정장(呈狀)하고 좌아(坐衙 관리가 관청에 출근하는 일)하는 날에 완천(完薦)하고 시재(試才)해서 본원에 소속하도록 허락하는 일을 수제(受題)한다. 뒤에 서경(署經)하는 규정에 의하여 친가 부모(父母)와 처가의 4조(四祖)를 갖추어 쓴 단자(單子)와 보거 단자(保舉單子)를 녹관청(祿官廳)에 바친다. 녹관(祿官)은 15원인데, 자리를 갖추어 관아에 모인다. 먼저 그 친가·외가·처가의 4조(四祖)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보거인(保舉人)을 살펴보고 나서 그 가부(可否)를 완의(完議)한다. 그 2매듭 이하를 취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부시(赴試)하는 것을 허락한다. 겸교수(兼教授)가 좌기(坐起)하는 곳에서 시강(試講)하는데 찌의 많고 적음에 의하여 결원(闕員)에 따라서 4학(四學)의 생도(生徒)로 충원하여 임명한다. 수결장(手決狀)을 붙인 첩문(帖文)을 만들어서 주어, 해당 방(房)에 봉감(捧甘)하여 관안(官案)에 기록하고 벼슬길에 나오게 한다.²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원 절차는 간단하지 않았다. 오늘날과 비교하면

19) 『반계수록』 권 15 職官之制 承文院條.

20) 『국역 통문관지』 (전자자료).

첫 번째 절차는 원서접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역원 입학 지원자는 사역원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도제조가 의복을 갖추고 출근하는 날에 맞추어 지원서를 제출한다. 두 번째는 서류심사라고 할 수 있다. 즉 친가 부모와 처가 양쪽의 4대 조상과 보거단자라고 불리는 보증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다. 지원자의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이후 관련 심사위원인 관리 15명이 모여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심사위원들은 각각 종이 뭉치를 받고 지원자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종이를 매듭지어 제출한다. 이후 각 지원자가 심사위원으로부터 종이를 받게 되는데 받은 종이 중 매듭이 3개 이상이 되면 입학할 수 없다. 이후 세 번째로 시험 즉, 실기시험을 치른다. 심사위원들은 매듭이 2개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기시험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다. 명단에 속한 지원자는 사역원 교수 앞에서 읽은 책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을 한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사역원의 생도가 될 수 있었다.

〈표 2〉 사역원 입학시험 절차 및 방식

	내용	참고
시험절차	1.원서접수	녹관청에 제출
	2.서류심사	양가 4대 조상 신상 보증인 신상
	3.실기시험-시강	수험자가 자유로이 선택
심사위원	취재녹관(取才祿官) 5명, 구임녹관(久任祿官) 10명	심사위원 15명 중 13명 친성해야 합격
선발인원	생도(80명)	한학 35명, 몽학 10명, 여 진학 20명, 왜학 15명
	예차생도(124명)	한학 40명, 몽학 25명, 왜 학 25명, 청학 34

한편 사역원 학생 중에는 일반 생도 외에 이미 문과에 합격하고 관직을 받은 후 사역원에서 한어를 공부하는 강이관(講肄官)과 아직 관직을 받지 못한 채 한어 공부를 하는 강예관(講隸官)이 있었다.

3.3 교원

승문원의 경우 전체 구성원은 겸직관리, 관원, 교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

다.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도제조와 제조 등이 겸직관리이고 실무관리는 참교, 판교, 교감 등이 있고 실질적인 교원은 이문습독관, 이문학관(한이학관) 또는 권지(權知)²¹⁾ 등이다. 그러나 교원뿐만 아니라 관원은 물론 여기 차정된 겸직 관리들까지 함께 공동학습을 하였다. 승문원에는 이들 외에 또한 외국인 교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실록』²²⁾에 보면 승문원의 전신인 응봉사에 귀화한 중국인 당성(唐誠)이 중국어와 이문을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성은 이후 조선 초기까지 정 3품 전서(典書)와 공안부윤(恭安府尹)의 벼슬을 지낸다.

사역원의 구성도 승문원과 유사하게 겸직관리, 관원, 교원으로 나뉘지며 이중 교원은 다시 교수와 훈도로 구분된다. 교수와 훈도를 제외한 직원은 체아직²³⁾이었다. 외국어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각 언어별로 별도의 정원이 배속되기도 하였다. 이진형(1981)에 따르면 그 수는 다음과 같다.

상임당상 定款없음, 부함관 273(한학 87, 교해 23, 몽학 45, 왜학 50, 청학 68), 권지 정원 없음, 강이습독관 30, 한학관 50, 생도 80(한학 35, 몽학 10, 왜학 15, 청학 20), 預差生徒(예차생도) 124(한학 40, 몽학 25, 왜학 25, 청학 34)

사역원 소속 우어청은 우리말이 금지되고 외국어 회화만이 허용되던 몰입 교육 방식의 교육기관이었다. 따라서 외국어 회화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교원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우어청에는 귀화한 외국인들이 교원으로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외국인을 교원으로 두기 위해 노력했다.

-
- 21) 임시직(臨時職) 벼슬로 벼슬 앞에 붙어 임시직임을 나타낸다.
 22) 『태종실록』 8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8월 20일(기축) 1번째 기사.
 23) 임시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관직에는 실직(實職)과 산직(散職)이 있고, 실직에는 녹관(祿官)과 무록관(無祿官)이 있으며, 녹관은 다시 정직(正職)과 체아직으로 구분된다. 체아직은 정해진 녹봉이 없이 1년에 몇 차례 근무평정에 따라 교체되며, 복무기간 동안의 녹봉을 받는 관직으로 조선 후기에는 체아직이 정직의 4, 5배나 되었으며, 이미 군직의 성격은 거의 사라지고 양반층의 미관자(未官者)나 한산자의 벼슬자리로 변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체아직 요약).

<영조 28권, 6년(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년) 11월 25일(경인) 1번째 기사>

저들과 우리나라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역관(譯官)에게만 의지해 왔는데, 근래에 한어(漢語)는 거의 써가 끊어져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대개 한학 우어청(漢學偶語廳)은 바로 고(故) 상신(相臣) 민정중(閔鼎重)이 창설한 것이므로, 한인(漢人)인 정선갑(鄭先甲)·문가상(文可相)을 훈장(訓長)으로 삼아 생도(生徒)를 가르치게 했던 까닭으로, 그때에는 아주 성과가 있었는데, 지금의 통역(通譯)하는 무리 중에서 한어를 잘하는 자들도 또한 지류(支流)입니다.

외국인 교원의 경우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렵고 그 수가 적어 우어청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승문원과 사역원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외국인 중에는 귀화인뿐만 아니라 국경부근에서 포로로 잡힌 군인 출신도 있었다. 다음은 포로로 잡힌 외국인을 교원으로 활용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이다.

<세종 94권, 23년(1441 신유 / 명 정통(正統) 6년) 10월 22일(을유) 1번째 기사>

이조 참판 성염조(成念祖)를 보내어 북경에 가서 명년 설을 하례(賀禮)하게 하고, 인하여 이상(李相)을 머물러 두기를 청하게 하였다. 그 주본(奏本)에 이르기를,

“의정부의 장계(狀啓)에 의거하건대, 함길도 절제사 이세형(李世衡)이 피로(被虜)된 남자 1명을 잡아 보냈는데, 이상(李相)이 내력을 물은즉, 요동(遼東) 철령위(鐵嶺衛) 군인에 속하였는데, 정통(正統) 2년 9월에 탈륜위(脫輪衛) 야인에게 포로가 되어, 여러 번 팔려서 종이 되었다가 변경에 이르러 왔는데 이번에 붙잡히게 되었다고 하옵니다. 그옥이 생각하건대, 본국은 동방에 궁벽하게 있어서 말[語言]이 중국과 다르므로 반드시 통역을 의뢰하여야 명령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에 원조(元朝)의 말기(末期)에 한남(漢南) 사람 한방(韓昉)·이원필(李原弼) 등의 무리가 피란해 나와서 생도들을 가르쳐 대국을 섬기는 임무를 삼가 갖추었더니, 그 뒤에 본인들이 잇따라 죽으매, 가르칠 사람이 없으므로, 한음(漢音)을 학습함에 있어서 점점 그릇됨이 있어, 혹 선유(宣諭)하는 성지(聖旨)를 밝게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을까 두려우며, 조정의 사신이 본국에 이르러서 대화하는 말을 이해하는 자도 적사오매 대단히 불편하옵니다. 다행히 지금 이상은 글

을 대강 알고 한음(漢音)이 순수하고 바르므로 머물러 두고 말을 전습(傳習)하기에 합당하오니, 신이 이에 의거하여 이상(李相)이 중국(中國)의 군정(軍丁)임을 참상(參詳)하고 주달(奏達)하여 머물러 두고 음훈(音訓)을 질정(質正)함이 마땅하옵기로 이를 삼가 갖추어서 아뢰옵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통번역 교육을 담당했던 교원의 소속과 직함,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조선시대 통번역교육 담당 교원

	교원	수	품계	구성
승문원	이문습독관(吏文習讀官)	20	종6~종9품	내국인
	권지(權知)	정원 없음	임시직	내국인
사역원	교수(教授)	4	종6품	내국인
	훈도(訓導)	10	정9품	내국인
우어청	훈장(訓長)			외국인

3.4 교재

조선시대에 사용된 외국어 교재를 역학서(譯學書)라고 하는데 정승혜(2002)에 의하면 조선전기에는 주로 아동용 교재를 수입하여 교재로 사용했고 임진왜란 이후 훈민정음으로 발음을 달고 그 뜻을 풀이한 언해서가 간행되었다. 외국에서 수입한 아동용 교재로는 대표적으로 만주어 학습서인 『소아론(小兒論)』과 『삼세아(三歲兒)』, 『팔세아(八歲兒)』를 꼽을 수 있고, 언해서 중에는 역관 출신이 직접 저술한 책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일본어 교재인 『첩해신어(捷解新語)』²⁴⁾를 들 수 있다.

교재들은 회화서, 어휘 사전으로 나눌 수 있고 교재에 표기된 언어에 따라 해당언어의 원본과 대역서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교재는 잘 알려진 바와 같

24) 조선 중기의 사역원(司譯院) 역관(譯官) 강우성(康遇聖)이 일본어 학습을 위하여 편찬한 책. 1권~4권, 9권 전반부는 왜관(倭館)에 거주하는 일본인과의 자주 사용하는 대화, 일본인의 왕래와 접대, 무역용 회화를 문답방식으로 지었고, 5권~8권은 통신사(通信使)의 일행이 사용하는 표현을 대화체로 엮어 일본어 회화를 학습하게 한 것이다. 일본어 히라가나(平假字)와 그 발음과 해석을 한글로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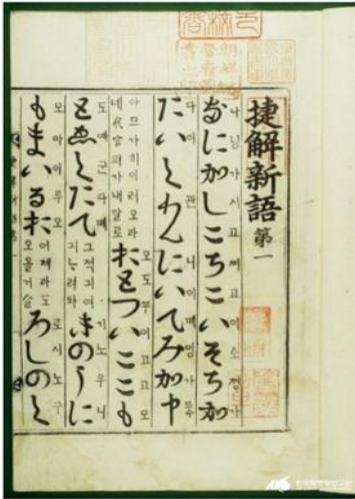
이 『노걸대(老乞大)』로 노걸대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몽고어, 만주어로도 간행되었다. 이 외에 어휘 사전류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역어유해(譯語類解)』,²⁵⁾ 『동문유집(同文類集)』,²⁶⁾ 『몽어유해(蒙語類解)』²⁷⁾ 등이다. 이 교재들은 승문원과 사역원 모두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밖에 『경국대전』을 번역하는 것이 역시의 한 과목이었던 만큼 경국대전 역시 교재로 사용되었다.

〈표 4〉 사역원에서 사용된 교재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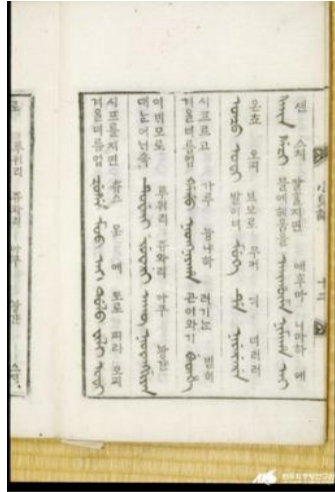
	언어구분	교재명
언어별 교재	중국어	사서(논어, 맹자, 중용, 대학) 노걸대, 박통사, 직해소학(直解小學) 오경(五經) · 소미통감(少微通鑑)(128) · 송원절요(宋元節要)
	몽고어	왕가한(王可汗) · 수성사감(守成事鑑) · 여사잠(御使箴) · 고난가둔(高難加屯) · 황도대훈(皇都大訓) · 노걸대(老乞大) · 공부자(孔夫子) · 첩월진(帖月眞) · 토고안(吐高安) · 백안파두(伯顔波豆) · 대루원기(待漏院記) · 정관정요(貞觀政要) · 속팔실(速八實) · 장기(章記) · 하적후라(何赤厚羅) · 거리라(巨里羅)
	일본어	이로파(伊路波) · 소식(消息) · 서격(書格) · 노걸대(老乞大) · 동자교(童子教) · 잡어(雜語) · 본초(本草) · 의론(議論) · 통신(通信) · 구양물어(鳩養物語) · 정훈왕래(庭訓往來) · 응영기(應永記) · 잡필(雜筆) · 부사(富士), 첩해신어(捷解新語)
	여진어, 만주어	천자(千字) · 천병서(天兵書) · 소아론(小兒論) · 삼세아(三歲兒) · 자시위(自侍衛) · 팔세아(八歲兒) · 거화(去化) · 칠세아(七歲兒) · 구난(仇難) · 십이제국(十二諸國) · 귀수(貴愁) · 오자(吳子) · 손자(孫子) · 태공(太公) · 상서(尙書), 노걸대(老乞大), 삼역총해[三譯總解] 기여제서금폐(其餘諸書今廢)

- 25) 1682년(숙종 8) 사역원 중국어 역관 신이행 · 김경준(金敬俊) · 김지남(金指南) 등이 편찬한 책으로 중국어 표제어는 한자로 쓰고 한글로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였다.
- 26) 1691년(숙종 17)년 이해(李海) · 오상채(吳相采) · 정만제(鄭萬濟) 등이 『동문유집(同文類集)』을 간행하고 그 목판들을 사역원에 보관하였다 함.
- 27) 편찬연대 미상의 몽고어 학습서.
- 28) 『경국대전』 권 3 禮典, 중 역과 초시, 복시 부분과 국어국문학자료사전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번역교재		경국대전
어휘사전류	외국어별	역어유해(譯語類解), 동문유집(同文類集), 몽어유해(蒙語類解), 왜어유해(倭語類解)
음운책		홍무정운(洪武正韻), 훈민정음(訓民正音), 동국정운(東國正韻)
기타		詩, 書, 古今通略, 孝經, 前後漢, 魯齋大學, 直解童子習 譯訓評話,



〈첩해신어〉



〈소아론〉

3.5 교수법

사역원의 교과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학과 마찬가지로 과거시험인 역과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과의 시험 과목은 크게 강서(講書), 사자(寫字), 역어(譯語)로 나뉜다. 이 중 강서는 옛글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강의 방법은 배운 부분을 소리 높이 읽고 문장의 자세한 뜻과 이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강(講)은 배강(背講)과 면강(面講)이 있는데, 배강은 뒤돌아서 질문에 답하는 것이며, 면강은 책을 보고 읽는 임문낭독(臨文朗讀)을 말한다.²⁹⁾ 배강과

29) 정순목(1979) 참조.

유사한 것으로 배송이 있다. 배송은 책을 보지 않고 돌아앉아서 외우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시험과목인 사자는 말 그대로 글자를 그대로 베껴 쓰는 것으로 외국어를 암기하여 그대로 쓰는 방식이다. 사자 시험의 경우 몽고어, 일본어, 여진어(만주어)만 시험을 치렀는데, 당시 한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 중국어는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시험과목인 역어는 경국대전이 그 대상으로 번역과 임문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교수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조선시대 통번역 교수법

교수법	명칭	뜻	적용 (과목)
낭독	배강	책을 보지 않고 교수가 지정한 부분을 읽고 질문에 답하는 방식	강서
	면강(임문)	책을 보고 지정부분을 읽고 질문에 답하는 방식	강서, 경국대전
암송	배송	책을 보지 않고 뒤돌아서 암기하는 것	강서
번역	번역	책을 보고 번역함	경국대전
쓰기	사자	글자를 베껴 쓰는 것	사자(몽고어, 일본어, 여진어)
몰입		외국어만을 사용하게 하고 모국어 사용을 금지	원시

3.6 규율

승문원과 사역원 관리 및 학생들의 규율은 타 교육기관에 비하여 더욱 엄격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엄격하게 처벌했다는 점이다. 세종실록에 보면 승문원과 사역원의 생도는 승문원이거나 사역원에서 우리말 사용이 금지되었고 상하 동문간의 대화는 물론 공사회의, 일상용어 일체를 중국어로 해야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매우 엄격한 벌칙이 주어졌는데 이진형(1981)에 의하면 그 정도에 따라 위반자의 하인을 구속하였고, 중범자는 형조에서 죄를 물었고, 녹관은 파직을 당하고 이후 1년간 채용을 금지하고, 전함(前銜) 권지(權知)는 1년간 취재에 응할 수 없었다. 생도는 정도에

따라 체벌을 받았는데 이러한 관행은 중국어뿐만 아니라 몽고어, 일본어, 여진어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서로 외국어로 문답하여 일정 성적 이하인 자에게는 체아직 취재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취재점수가 같을 때는 회화성적을 우선하였다.

〈표 6〉 모국어 사용 금지 위반 시 적용하던 벌칙

	위반회수	벌칙	내용
모국어사용	1회	부과	관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과오를 인사기록에 기재
	2회	차지 1인	거느리던 하인을 옥에 가둠
	3회	차지 2인	상동
	4회	차지 3인	상동
	5회 이상	형조 이첩	형조로 사건을 넘겨 죄의 정도를 논함 녹관: 파직한 후 1년 이내 채용 불가 전함권지: 1년 이내 취재 응시 불가 생도: 회수에 따라 매질

두 번째, 사역원에서는 출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출석일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점수로 환산하여 취재 및 부경사행 등에 동행하는 역관 선발에 반영하였다. 무단 결석자나 핑계를 대고 규율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정도에 따라 하인을 구속하거나 취재, 서용(敍用)³⁰⁾을 불허하고 군역을 지게 하는 등의 중벌에 처했다.

세 번째는 엄격한 성적관리이다. 부경통사 선발 및 파견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재 기피자를 벌하고 출석 일수가 많아도 취재 성적이 불량하면 부경 행을 불허하였다.

이외에도 윤번제였던 부경사행에서 남의 순번을 가로채는 경우는 3년간 파견을 금지하였고, 부정, 밀매행위, 출장기한 위반 등에 대해 역관직을 취소하는 등의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30) 주로 벼슬을 잃은 사람에게 다시 관직(官職)을 주어 씀.

3.7 시험제도

3.7.1 재학 중 시험

①고강

고강(考講)이란 배운 것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고강은 서도고강(書徒考講)과 이육고강(二六考講)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서도고강은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고 이육고강은 부경(중국의 수도)으로 가는 사행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으로 두 시험의 목적이 다르다.

②원시

『통문관지』 권 2 「권장(勸獎)」³¹⁾을 보면 원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정 계축년에 본원의 초기로 인하여 중국인과 교류 접촉할 즈음에 언어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문자를 그 다음에 두었다. 상시 읽던 책을 제외하고 책 수를 갖추어 고강하게 하였는데, 매 2인씩 짝을 지어서 중국어를 강하게 하였다. 이것을 원시라고 일컬었다.

위 글을 통해 원시는 일종의 중국어 회화시험으로 그 방법은 2인이 짝을 지어 중국어로 문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원시는 녹직 취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원시 결과 성적이 상위 30% 이상자만이 녹직 취재에 응할 수 있고 취재에서 점수가 동일할 경우 원시 성적 우수자를 선발했다.³²⁾

3.7.2 취업시험

①역과

역과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역과는 정기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식년시(式年試)와 특별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증광시(增廣試)로 크게 구분된다. 식년

31) 원문: 院試<嘉靖癸丑 因本院草記 與華人交接之間 言語最先 文字居次 除常時所讀書 備數考講 每二人作 講論華語 謂之院試>.

32) 정광, 한상권(1988) 참조.

시는 3년에 1회가 있었고 증광시는 임금의 등극을 축하하는 즉위경, 재위를 축하하는 등극경 등 국가의 큰 경축일에 임의로 시행되는 시험이다. 역과는 총 2 단계에 걸쳐 치러지는데 각각 초시와 복시라고 불린다. 시험의 주 내용은 크게 외국어 실력과 소양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초시와 복시의 시험과목은 대체로 중복되나 선발 인원에서 차이가 난다. 이성무(1994)에 따르면 1차 시험인 초시의 경우 중국어 23명, 나머지 3학에서 각 4인을 선발하였다가 2차 시험인 복시를 치른 후 최종 중국어 13명, 나머지 3학에서 각 2인을 선발한다.

시험과목은 옛글의 뜻을 강론하는 강서(講書), 글자를 그대로 옮기는 사자(寫字), 외국어를 번역하는 역어(譯語) 3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강서는 강경이라고도 하는데 실제 과거 시험 과목 중 하나로 시험관이 지시하는 부분을 읽고 해석한 뒤 시험관의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이다. 사자는 글자를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외국어 표기법과 발음 등을 익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역어는 경국대전을 번역하는 시간이다.

② 취재

취재는 특별 임용시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성적에 따라 상등은 통사, 중등은 압물,³³⁾ 압마,³⁴⁾ 하등은 타각부³⁵⁾로 선발되며 사행에 동행하여 통역을 맡거나, 중국 서적, 악재(樂材), 악기(樂器) 등을 가져왔다.

33) 외국에 사신(使臣)이 갈 때 수행하여 조공(朝貢)하는 물건과 교역(交易)하는 물건들을 맡아 관리하는 관원.

34) 사신이 외국에 갈 때 그 일행의 말을 맡아서 관리하던 관원.

35) 조선(朝鮮) 시대(時代)에 중국(中國)에 보내던 사신(使臣) 일행의 모든 기구(器具)를 감수(監守)하던 사람.

〈표 7〉 사역원의 시험

구분	시험명	종류	목적	참고
재학 중 시험	고강(考講)	서도고강(書徒考講)	학업장려	
		이육고강(二六考講)	사행 참여 자격 부여	
	원시	회화시험	녹직 취재 응시 자격 부여	연 4회 실시
취업 시험	역과	식년시(式年試)	역관선발	3년마다 1회 실시하는 정기시험
		증광시(增廣試)	역관선발	국가 경사일에 실시
	취재	녹취재	역관선발(사역원 원내근무)	총 11인 선발
		위경취재	역관선발(사역원 외부근무)	
		부경취재	역관선발(중국사행 수행역원)	

4. 결론

사대교린의 외교정책을 펼쳤던 조선시대에서 사실상 주요 외교 인력인 통번역사를 양성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역관의 통번역 능력은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고 통번역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일었다.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사역원 생도들의 출석일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시로 시험을 치러 그 결과에 따라 역관을 선발하는 등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조선시대의 통번역 교육의 특징은 고려시대와 비교하여 세분화, 전문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반 통번역을 담당하는 역관 교육은 주로 사역원에서 이루어졌고, 승문원에서는 외교문서를 작성하거나 번역하였고 사신 왕래 시 공식적인 어전통사를 맡기도 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통역교육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사역원 소속으로 회화 및 통역 훈련 강화를 위해 특별히 설치된 우어청이 바로 그 예이다. 우어청은 외국인을 교원으로 삼고 일체의 모국어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통역 실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사역원 재학생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 외에도 사역원은 활발한 저술 및 번역 활동을 펼쳤다. 고려시대 발간된

교재들은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되었고 교원들은 사전류를 포함한 새로운 교재를 편찬하였다. 통번역사들이 관직 등용문인 역과에 응하기 위해서는 통번역 교재뿐만 아니라 경국대전 및 유학 경서까지 공부해야했다. 당시에든 현재 통번역사들처럼 다양한 지식이 요구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역설적으로 통번역사의 사회적 지위는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후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 첫째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학과 기타 학문을 차별하는 태도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외교문서와 일반 통번역 교육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전자는 승문원 문관이 담당하고 후자는 주로 사역원 중언계층이 담당하게 되면서 문과에 합격하고 이문과 한어를 배웠던 젊은 문관들은 중앙 관직 진출을 위해 통번역 학습에 전념할 수 없었다. 결국 우수한 인재들의 통번역 교육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의 효율 및 성과도 저조하였다.

참고문헌

- 박성주 (2009) 「조선전기 대명 어전통사」, 『경주사학』 29: 27-51.
 신천식 (1995) 『고려교육사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이건형 (1981) 「조선왕조의 역학교육」,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16: 241-63.
 이미숙 (2003) 『고려시대 기술관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미숙 (2009) 「고려시대 역관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46: 201-34.
 이성무 (1994) 『한국의 과거제도』, 서울: 집문당.
 정광 (1990) 『조선조 역과 시권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정광, 한상권 (1985) 「사역원과 사역원 역학서의 변화연구」, 『덕성여대논문집』 14: 169-234.
 정순목 (1979) 韓國書院教育制度研究,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정승혜 (2002) 「한국에서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이중언어학』 21: 286-312.

전자자료

『경국대전』(200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 동방미디어.

『고려사』(1998), 서울: 누리미디어

『고려사절요』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3FbizName=MK%26seojiId=kc_mk_a004%26gunchalId=av017%26muncheId=01%26finId=009)

『국역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Tree=0&id=kda>)

『국역 통문관지』(2004)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동방미디어.

『반계수록』(2001) 서울: 누리미디어.

이응백, 김원경, 김선풍 (1998) 『국어국문학자료사전』서울: 한구사전연구소.

(<http://terms.naver.com/list.nhn?cid=41708&categoryId=41711>)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http://terms.naver.com/list.nhn?cid=41826&categoryId=4182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list.nhn?cid=44621&categoryId=44621>)

[Abstract]

Study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Education in Joseon Dynasty

Yu, Jung-Hw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ne of the most notable characteristics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education in the Joseon Era(AD 1392-1910) is higher degree of segmentation and specialization compared to that in the preceding Korea Dynasty(AD 918-1392). Unlike the previous era when Confucianism, art of war and general knowledge were all taught at *Gukjagam*, the supreme educational institution, its equivalent in Joseon, *Sungkyunkwan*, provided education only on Confucianism while other educational disciplines were transferred to different specialized institutions. As per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were mainly educated at *Sayeokwon* while *Seungmunwon* officials prepared and translated diplomatic documents. Such segmentation and specialization deepened discrimination between Confucianism and other academic fields, lowering the status of translation/interpreting education. The second prominent feature was the emphasis given to interpreting education. A good example was *Wooeocheong*, an agency installed under *Sayeokwon* specifically to enhance conversation and interpreting train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related institutions of Joseon including *Seungmunwon* and *Sayeokwon* tried to nurture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capabilities in many ways such as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conversation text books and employment of foreign instructors. Developing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was a very important national task to Joseon as the country sought *Sadaegyorin* (serving the great China while having equal relationships with the neighbors) diplomatic policy. Recognizing the importance, the government tried to raise quality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through systematic education. However, the actual effect was not very high as the education was considered to be meant for a certain class of society given at a certain educational institution.

▶ Key Words: Joseon Dynasty, Translation training, Seungmunwon, Sayeokwon, Wooeocheong

유정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노과 조교수

yujh@hufs.ac.kr

관심분야: 통번역 교육사, 러시아 번역 이론

논문투고일: 2014년 8월 2일

심사완료일: 2014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 2014년 9월 15일